

오전 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임춘배 담임목사
	3부 오후 1:00	(청년예배)	김진만 목사

1, 2부		3부 (청년)
기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양과 경배	31장 (통일찬송가 46장)	
교독문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찬양과 경배	455장 (통일찬송가 507장)	손주은 청년
기도	편도선 장로	
말씀봉독	디모데전서 1장 12~20절	마태복음 5장 8절
설교	직분을 맡은자의 마음자세 (임춘배 목사)	마음이 청결한 자 (김진만 목사)
헌금	헌금송 : 장수정 집사	정예영 회장
환영 및 광고	인도자	
파송의 노래	주의 나라 세우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축도	임춘배 목사	주기도문
성도의 교제	다함께	

주일 오후	오후 3: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

찬양	JOY AND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6장 1~8절
기도	김미숙 권사
말씀	두 번째 환상 : 7인 심판 (임춘배 목사)
광고 및 축도	임춘배 목사

수요 예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

이기에 하시는 하나님 (시21:1-13)

교회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예배안내** 모든 예배와 부서별 모임을 코로나 이전처럼 드립니다.
 - 1.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 2.점심: 부서별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3.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월삭 및 총동원** 월삭 새벽예배 : 9월 1일(목) 새벽 5시 30분, 주관 : 운영위원회
총동원 금요기도회 : 9월 2일(금) 저녁 8시 30분, 주관 : 제직회
- 헌신예배 안내** 9월 25일 : 요셉회
10월 23일 : 여호수아회
11월 27일 : 루디아회
12월 18일 : 마리아회
- 코로나 19 기도제목**
 - 1.코로나19 확산이 속히 멈추고 예배와 사역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 2.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3.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 4.선한교회의 각 부서들의 부흥과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 5.선한교회를 위해 예비된 분들이 모두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부서별 행사** 루디아/여호수아: 8월 28일(주)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직분 맡은 자로서의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주간 되기를
--------------	--------------------------------------------------------------------

찬송 :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통 144)

본문 : 이사야 53장 4~6절

말씀 :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고난을 스스로 받아들여 고난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하실 고난을 본인 스스로 선택하시고 그 고난의 잔을 마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셔서 고난의 잔을 드신 것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었습니다.(사 53:5) 세례 요한은 이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죄인 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사 53:5)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은 뒤 그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인간이 갖는 두려움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신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할지라도 항상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엡 2:14)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을 떨쳐 버리고 참된 평화를 누리야 합니다.(롬 5:1)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영적인 회복입니다. 구원의 축복입니다. 다음은 육체의 회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 들어오고 질병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실 때 영혼의 회복뿐만 아니라 질병의 회복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설교와 가르침과 치유입니다. 병 고침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병자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모든 자의 병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막 16:17, 18),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기도할 때 병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의미를 온전히 알고 있는가, 나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제 목

직분을 맡은자의 마음자세 (딤후1:12-20)

서 론 바울은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바른 마음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 맡은자가 가질 마음

- (1)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12절).
- (2) 나를 능하게 하신다(12절).
- (3) 나는 긍휼을 입은 자다(13-16절).
- (4)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19절).

본 론

2. 교훈

- (1) 바울이 말한 직분자의 바른 마음 자세는 무엇인가?
- (2) 나는 직분맡은자로 살고 있는가?
- (3) 나는 직분자로서 갖지 못한 마음은 무엇인가?

결 론

직분을 맡은 자로서 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 배 기 도	편도선 장로	윤호중 장로
오후예배 기도	김미숙 권사	김점분 권사
주 방 봉 사	드보라회	여호수아회

매일 Q.T.		고통받는 자를 살피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	날짜 : 8월 29일
찬양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본문	창세기 16:1~16		
말씀요약	사래가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여종 하갈을 아내로 줍니다. 아브람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의 일입니다. 임신한 하갈은 사래의 학대를 피해 도망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돌아와 아들을 낳고 아스마엘이라 이름 짓습니다.		
목상질문 1	사래와 하갈 16:1~6 자녀 출산을 위해 사래가 아브람에게 제시한 인간적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나의 인간적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고, 더 인내할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하갈과 이스마엘 16:7~16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하갈을 만나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교적 관점에서 이스마엘 후손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한절묵상	창세기 16장 6,11절 하갈 인생의 전환점은 하나님이 그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말씀이 임할 때였습니다. 하갈은 내내 종으로 살았을 뿐 아니라 여주인 사래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죽음의 땅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갈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고통뿐인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11절)라는 선언은 우리를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을 시도했다가 고통에 빠진 사래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하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저를 도와 주소서. 인간의 잘못으로 잉태된 자, 학대받는 자도 살피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전하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찬양과 기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새 382)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아프리카 선교의 구심점이 된 선교단체 HAM(Heart of Africa Mission)과 WEC(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의 설립자인 C. T. 스톨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아주 자그마한 선교관을 짓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관에 뱀이 들어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선교사님은 사모님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우리를 덮고 있소.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자마자 아이들이 들어와서 침대에 뱀이 있다고 하더군. 담요를 들쳐 보니 가느다란 초록색 뱀이 있었소. 물리면 죽는다고 원주민이 알려 주던 바로 그놈이더군. 간밤에 그놈과 함께 잔 거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 주신 사자는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거요.” 이것이 스톨드 선교사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뱀이 이불 속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피곤해서 정신없이 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뱀이 그를 물지 못하도록 밤새 지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을 알도록 밤새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 유기성, 「우리 서로 사랑하자」(두란노) 오늘도 여전히 삶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나요?		
말씀 나누기	창세기 18:1~15		
목상포인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나그네 모습으로 나타 나십니다. 아브라함은 생면부지 나그네를 진심으로 환대합니다. 그 섬김에 답하기라도 하시듯 하나님은 1년 뒤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환대할 때 우리는 부지중에 주님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라는 주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그네와 작은 자를 섬기며 살 때 주님께 칭찬받고, 살아 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목상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보이는 이들을 어떻게 대접했나요?(1~8절)		
적용하기	“나그네를 사랑하라”(신 10:19)라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주님의 몸 된 교회와 공동체가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앞장서길 원합니다. 진실한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최악의 도시 소동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	날짜 : 9월 2일
찬양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본문	창세기 18:16~33		
말씀요약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동과 고모라의 최악과 심판을 알려십니다.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실지 아브라함이 묻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용서하겠다고 하십니다. 40, 30, 20명으로 수를 줄여 가던 아브라함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확답을 받습니다.		
목상질문 1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18:16~19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공도'(정의와 공평)의 삶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나요?		
목상질문 2	하나님의 마음 18:20~33 의인 수를 열 명까지 줄인 아브라함의 간구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거룩하고 의로운 한 사람이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요?		
한절묵상	창세기 18장 32절 하나님은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의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소동에 의인 열 명만 있어도 그곳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열 명은 한 도시 안에서 매우 적은 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심판을 취소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수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의인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소동에서 의인을 찾으셨던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의인을 찾으십니다. 성도는 최악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의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세상에서 제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세상의 죄에 분노하시지만 끝까지 공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제가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 겸손과 애통함으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매일 Q.T.		영원한 언약, 언약의 표징	날짜 : 8월 30일
찬양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본문	창세기 17:1~14		
말씀요약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시며, 그의 후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대대로 아브라함 집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목상질문 1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17:1~8 하나님은 왜 아브람의 이름을 바꿔 주셨을까요? 영원한 언약의 복을 성취하는 삶이 되도록 내가 결단하고 행할 것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할례 언약 17:9~14 하나님이 언약의 표징을 사람의 몸에 두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을까요?		
한절묵상	창세기 17장 1절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말씀과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전능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맘'은 '나무랄 데 없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함을 추구해야 마땅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 안에 언약을 새겨 주신 하나님! 영원히 부끄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루실 구원 역사를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매일 Q.T.		현실과 약속의 간극에도 순종하는 믿음	날짜 : 8월 31일
찬양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본문	창세기 17:15~27		
말씀요약	하나님은 사래를 '사랴'라 부르시며 그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웃으며 늙은 사래가 어떻게 출산하겠느냐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래가 낳을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명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집의 모든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습니다.		
목상질문 1	사래에서 사래로 17:15~22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으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 뜻을 깨닫기 위해 나는 어떤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목상질문 2	할례를 행하는 아브라함 17:23~27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받은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순종한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창세기 17장 17절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18:12~15). 그들이 처한 현실로 인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진짜 웃음을 선물하십니다(21:6). 우리의 믿음은 유한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없고 완전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웃음을 주실 수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현실의 벽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계획에 압도되어 제 영혼이 떨립니다. 이삭이 잉태되기도 전에 그의 존재에 대한 약속과 이름을 먼저 주신 하나님!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 약속의 실체를 보게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의심의 웃음이 감격의 웃음 되게 하소서.		

매일 Q.T.		주님을 섬긴 환대, 아들 약속 재확인	날짜 : 9월 1일
찬양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본문	창세기 18:1~15		
말씀요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은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영접한 후 그들에게 떡과 송아지 요리 등을 대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사래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래가 속으로 웃자, 하나님은 그분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하십니다.		
목상질문 1	하나님의 방문 18:1~8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나그네를 어떻게 환대했나요? 오늘 내가 접하게 될 사람을 어떻게 대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실까요?		
목상질문 2	아들 약속 18:9~15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 약속과 현실의 벽 사이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한절묵상	창세기 18장 14절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풍성한 은혜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 신체적 늙음이 좌절, 한탄, 불가능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 앞에서 인간의 모든 불가능과 한계는 무력화됩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한계를 초월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성도에게 불완전한 현실은 도리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현실이 하나님 약속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능력 앞에 제 의심을 철저히 내려놓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제가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께 하듯 섬김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소서.		